

## 2002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BLS(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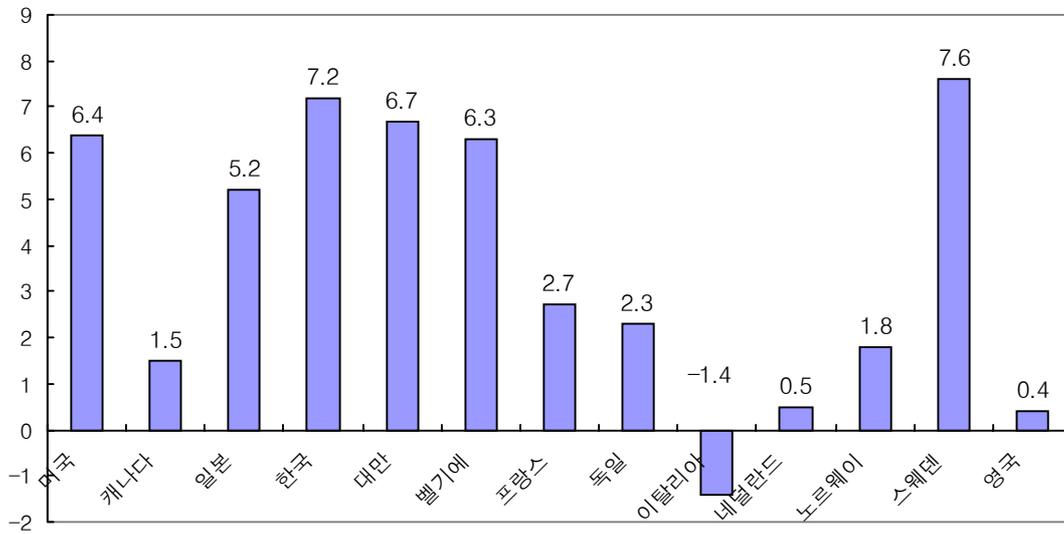
2002년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4%로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비교한 13개 국가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그림1 참조).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고, 네덜란드와 영국이 가장 낮게 증가했다. 전체 13개 국가 중 이탈리아가 유일하게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미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최근 15년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체 13개 국가들 중 6개 국가에서 2002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 후반의 평균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1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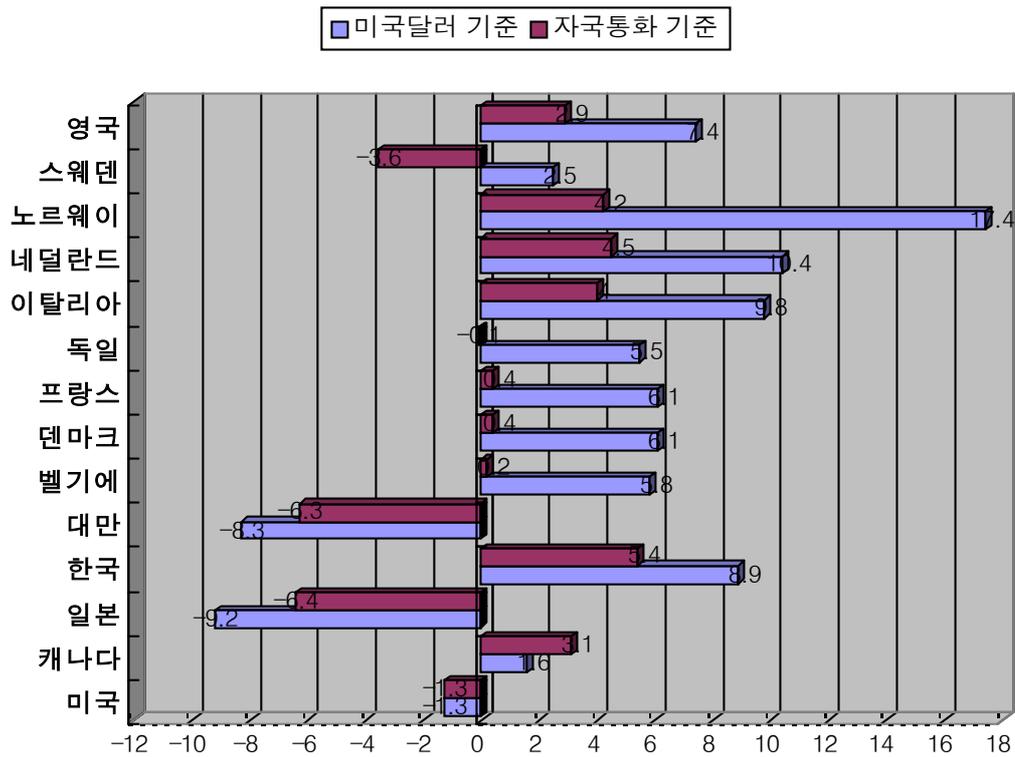
2002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자국 통화)을 보면 14개 국가 중 9개 국가에서 증가했다. 2001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5.4%로 2002년에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본과 대만이 각각 6.4%와 6.3%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1.3%), 스웨덴(3.6%), 독일(0.1%)에서도 감소했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환율 변동을 고려해서 미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2년에는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한국과 9개 유럽국가에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표 1 참고).

[그림 1] 2002년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그림 2] 2002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표 1] 2002년 단위노동비용관련 지표의 증가율(제조업) 1)

(단위: %)

	시간당 노동생산성	산출량	노동 투입량	고용량	평균 근로시간	총노동 비용	시간당 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		달러환율
								자국 통화	미국 달러	
미국	6.4	- 1.1	7.0	- 6.8	- 0.3	- 2.4	5.0	- 1.3	- 1.3	-
캐나다	1.5	2.6	1.1	0.7	0.4	5.7	4.6	3.1	1.6	- 1.4
일본	5.2	- 1.5	- 6.4	- 6.4	0.0	- 7.9	- 1.6	- 6.4	- 9.2	- 2.9
한국	7.2	6.3	- 0.8	- 0.2	- 0.7	12.0	13.0	5.4	8.9	3.3
대만	6.7	6.6	- 0.1	- 1.8	1.7	- 0.2	- 0.1	- 6.3	- 8.3	- 2.1
벨기에	6.3	0.5	- 5.5	- 3.1	- 2.4	0.7	6.5	0.2	5.8	5.6
덴마크	NA	0.4	NA	- 3.8	NA	0.8	NA	0.4	6.1	5.7
프랑스	2.7	0.1	- 2.6	- 1.7	- 0.9	0.5	3.2	0.4	6.1	5.6
독일	2.3	- 0.3	- 2.6	- 2.1	- 0.6	- 0.4	2.2	- 0.1	5.5	5.6
이탈리아	- 1.4	- 0.7	0.7	1.0	- 0.2	3.2	2.5	4.0	9.8	5.6
네덜란드	0.5	- 1.6	- 2.2	- 2.2	0.0	2.8	5.1	4.5	10.4	5.6
노르웨이	1.8	- 0.6	- 2.4	- 1.1	- 1.3	3.5	6.0	4.2	17.4	12.7
스웨덴	7.6	2.9	- 4.4	- 2.8	- 1.6	- 0.8	3.7	- 3.6	2.5	6.4
영국	0.4	- 4.0	- 4.4	- 5.1	0.7	- 1.2	3.3	2.9	7.4	4.4

### ■ 제조업 노동생산성, 산출량, 노동투입량

2002년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산출량)은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4% 증가를 나타냈다. 2002년 노동생산성은 조사 대상 13개 국가들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다. 한국(7.2%), 스웨덴(7.6%), 대만(6.7%)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미국보다 더 컸다. 영국(0.4%)과 네덜란드(0.5%)가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1년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의 없거나 정체되어 있었으나 2002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2년에는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만 예외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하락

했다.

벨기에, 일본, 스웨덴과 미국에서의 나타난 상당한 노동생산성 증가는 노동투입량의 급격한 감소와 산출량의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1995~2000년 사이 미국과 스웨덴에서 나타났던 노동생산성 증가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급격한 산출량 증가와 노동투입량의 미미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산출량(실질 GDP대비)은 1995~2000년 계속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2년째 감소했고, 2002년에는 감소율이 약간 둔화되었다. 2002년 미국의 산출량 감소는 전체 14개 국가 중 4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미국보다 산출량 감소가 큰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영국이다. 일본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산출량 증가율이 낮았다. 한국과 대만의 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다. 대만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2002년 산출량 증가율은 1979~2002년간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1) [표 2]는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의 생산성 관련 지표들의 연평균 변화율을 보여준다 시계열 자료들은 미국 노동통계국, 해외노동통계부 웹사이트 <http://www.bls.gov/fls/home.h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산량과 달리 제조업 노동투입량은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감소했다. 미국의 노동투입량은 2002년 7.0% 감소해서,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고, 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감소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만의 0.1%에서 일본의 6.4%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2002년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6개 국가들에서 노동투입량과 산출량이 모두 감소했는데, 노동투입량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

지난 십여년 간 제조업에서의 노동투입량 감소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1960년대와 70년대(미국의 경우에는 1979년) 노동투입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의 속도가 빨라졌다. 대만과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일한 예외는 캐나다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투입량 감소의 원인은 제조업 고용량 감소와 노동시간의 감소이다. 노동시간의 감소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 후 급격하면서도 지속적인 고용량 감소가 뒤따랐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이 1979년 이후 약간 증가했다.

2002년 일본, 영국, 미국에서 총 노동투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제조업 고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노동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만 유일하게 2002년 고용량이 약간 증가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모두 고용량이 감소했고, 대만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도 같거나 줄어 들었다.

## ■ 제조업 노동비용과 단위노동비용

200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비용은 2.2~6.5%까지 증가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노동비용이 두자릿수(13.0%)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과 대만에서는 간접노동비용이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2년 노동비용 증가율은 1979~2002년 기간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마찬가지로 단위노동비용(자국 통화 기준) 증가율은 1979~2002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다.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스웨덴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노동비용 증가율보다 커서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비용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쇄했다.

국가간 경쟁력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환율변동을 감안해서 단위노동비용을 미국 달러로 나타내면,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위노동비용 증가량은 달러화로 전환될 경우 더 크게 나타난다. 각 국가별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도 달러화로 전환되면 더 비싸지고 경쟁력은 악화된다.

2002년 미국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평가절하되었는데, 특히 노르웨이 크로네의 경우에는 12.7%나 절하되었다. 유로는 5.6%였다. 이로서 7년간 계속되었던 미 달러화의 환율강세가 약세로 돌아섰다. 일본 엔과 캐나다 달러, 대만 달러만 2002년에도 미국 달러보다 더 약세를 보였다.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달러화 기준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과 마찬가지로 2002년에도 일본과 대만에서의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미국이 이 두 국가 이외에 유일하게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 국가이다.

따라서 200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통화 기준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최근 3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았지만,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달러화로 표시된 단위노동비용은 사상 유래 없는 비율로 증가했다.